

## I 이달의 소식

### 1. 모임안내

1쪽

## II 내용

1. 노아의 홍수 (11) 포스터모더니즘 세대를 위한 창조과학 - 이재만

2쪽

2. Answersingenesis (1) 묘지로 뒤덮인 세상 - 대구지부 역

4쪽

3.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19) 빛나는 얼굴 - 김경태

9쪽

4. 참 아름다워라! (36) 창세기대홍수는 역사적 사실 - 창조과학회

11쪽

## 인사말



며칠 전 꽃씨를 화분에 뿌렸습니다. 눈꼽만큼이나 작은 씨를 지금 뿌리지만 몇 달 후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을 고대하면서, ‘이 작은 씨 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씨 안에서 적시적소에 일어날 매우 정교하고도 질서정연한 기적같은 사건들(유전정보의 발현, DNA 복제, 세포분열, 신호전달, 세포간의 상호작용 등을)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신비를 다시 한번 즐거워했고, 또한 창조주의 엄청난 지혜에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창조과학사역이 눈꼽만큼 작을지라도 우리 속에 작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반드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4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부지부장 성영관 올림 -

## 1. 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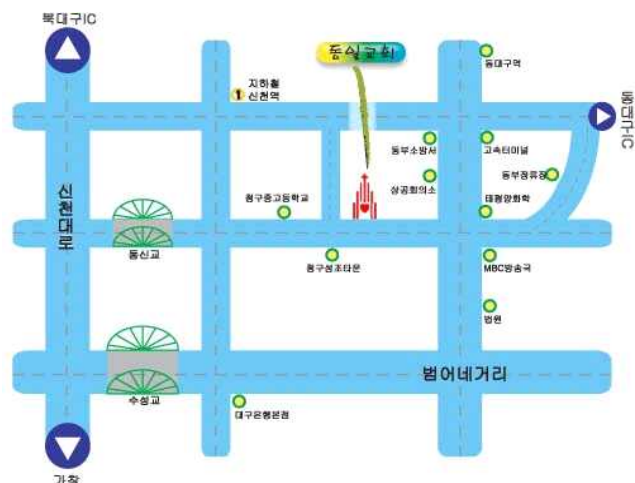
일시: 2008년 4월 17일(목)

장소: 동일교회 복음센터 306호

☎ (053) 743-6058

내용: The Book of Genesis

(by Chuck Missler)



## 포스트모더니즘

## 세대를 위한 창조과학

우리는 지금 포스트모더니즘(모더니즘의 이성보다 감성을 중시하는 하나의 사상)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20 세기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절대적 진리라고 여겨졌던 과학이론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절대적이라고 여겨왔던 유클리드의 기하학, 뉴턴의 고전물리학 등이 단지 어떠한 시스템 안에서만 적용 가능할 뿐 모든 것에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양자역학의 분야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모든 자연현상을 알 수 없음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자연과학에서의 '상대성'과 '불확실성'은 바로 사회과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영향은 절대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고에서 벗어난 탈 현대주의를 추구하게 하였다. 한 마디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상대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과학은 곧바로 교육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인 오늘날 학교에서는 어떠한 절대 진리를 제시하는 교육을 추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여기에는 과학을 포함하여 종교, 문화, 윤리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를 자신의 마음에 두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

교회 속에서도 나이에 따라서 두 부류를 만나게 된다. 어른들과 그 2세대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그 보다 어린 나이의 부류이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른들에게 성경적 진리를 제시하면, 그 제시가 당사자에게 타당하면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한다. 반면에 2세대의 경우는 그 진리가 받아들일 만 할지라도 그 심중의 자세는 사뭇 다르다. 그들에게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느낌이 들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2세대에게는 '이것이 진리이다'라는 말이 편안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을 통해서 마음속에 어떤 기준(standard)을 두는 것이 연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을지라도 1세대들은 더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면 그 더 분명한 것에 기준을 삼으려 한다. 오히려 1세대에게는 어떠한 표출된 기준이 있는 것을 편안해 한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2세대들은 그것이 타당하게 느껴질 지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시시한 존재가 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이들은 '맞다' '틀리다' 식보다는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식의 자신의 감정에 근거한 대답을 선호한다.

창조과학강연을 통하여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피력하기도 하지만, 2세들을 대할 때면 그들에 어떤 식의 교육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강연의 효과를 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몇 가지 예를 통하여 학교에서 자신이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배워왔으며, 실제로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후에, 성경이 왜 절대적인 진리이고 사실인가 하는 면을 보여줄 때 효과가 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순서를 바꾸어 성경이 사실이라는 예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어쨌든 강연 도중에 반드시 자신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큰 효과를 본다.

창조과학은 그런 면에서 2세들에게 자신이 어떤 시대에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여주며,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동물 중 하나가 아닌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우쳐 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는 진화론적 교육만 받아온 자신들에게는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이며, 불확실한 포스트모더니즘 세대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여 준다.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기준, standard)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사 49:22).’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will lift up My hand to the nations. And set up My standard to the peoples; And they will bring your sons in their bosom, And your daughters will be carried on their shoulders.* - Isaiah 49:22, NASB)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자신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때에 민족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어깨에 메고 그 기호로 나온다고 하셨다. 그리고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 하리라(49:23하)’고 하셨다. (*And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Those who hopefully wait for Me will not be put to shame.* - Isaiah 49:23b, NASB)

오늘날 우리들은 기준(standard)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과연 포스트모더니즘 세대에게 어떻게 기준을 기준이라고 심어 줄 수 있을까? 정말 바로 그 때에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어깨에 메고, 그 기준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만이 온전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로 모든 사람이 그가 여호와인줄을 알 때, 우리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는 쪽에 서있으면 어찌하랴? 1세들은 늦기 전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자녀들에게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 묘지로 뒤덮인 세상 (The World's a Graveyard)

전 세계 암층에서 발견된 화석묘지들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의 증거입니다.

만약 창세기 7장과 8장에 묘사된 것처럼 창세기 대홍수가 정말로 일어났다면, 어떤 증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할까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기사에서는 창세기 대홍수의 증거가 되는 6가지 주된 지질학적 증거를 개략적으로 다뤘고, 두 번째 기사에서는 첫 번째 증거(아래 목록 참고)를 검토했습니다.

### 창세기 대홍수에 대한 6가지 주된 지질학적 증거 (Six main geologic evidences for the Genesis Flood)

증거 1. 해수면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바다 피조물 화석

(Fossils of sea creatures high above sea level)

증거 2. 동식물의 급격한 매몰 (Rapid burial of plants and animals)

증거 3. 광대한 지역을 가로질러 퍼져있는 급격하게 퇴적된 퇴적층들

(Rapidly deposited sediment layers spread across vast areas)

증거 4. 먼 거리를 운반된 퇴적물 (Sediment transported long distances)

증거 5. 지층 사이의 침식 흔적이 없음 (Rapid or no erosion between strata)

증거 6. 급격하게 연속적으로 쌓인 많은 지층들 (Many strata laid down in rapid succession)



창세기 7장에서 모든 높은 언덕들과 산들이 물에 덮였고 땅에서 공기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휩쓸려가서 죽었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우리가 어떤 증거를 찾게 될 것인지는 명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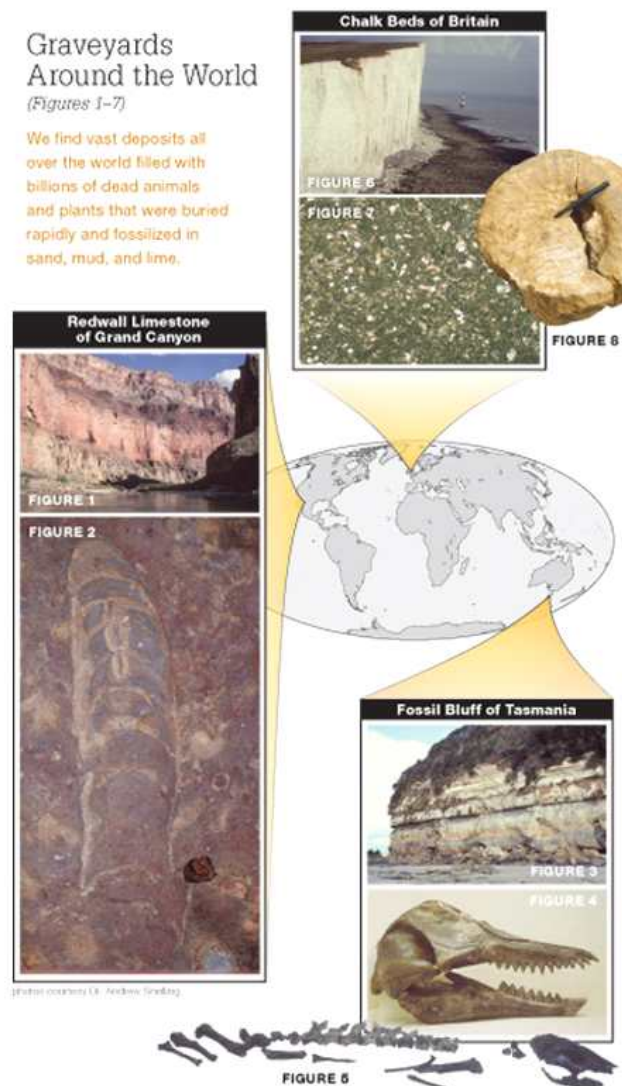
전 지구에 걸쳐 모래, 진흙, 그리고 석회암에 급격히 묻혀서 화석화된 수십억의 동식물들로 채워진 암층들을 발견할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록 대홍수의 격변적인 지질학적 활동이 대홍수가 끝나자마자 쇠퇴하였을지라도, 계속해서 소규모의 격변들이 여전히 지역적인 화석 퇴적물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 전 세계의 묘지들 (Graveyards Around the World)

셀 수 없이 많은 수십억의 동식물 화석들이 엄청난 규모로 급격히 묻혔어야만 했던 광대한 ‘묘지들’ 내에서 발견됩니다. 종종 피조물의 세밀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격벽에 의해 방을 가지고 있는 직각 형태의 **노틸로이드**(nautiloids; 그림 2)가 그랜드 캐니언의 **레드월 석회암층**(그림 1) 내의 2미터(7피트) 두께의 층에서 다른 해양 피조물과 함께 화석화된 채로 수십억 개가 발견됩니다. 이러한 화석묘지는 적어도 30,000 제곱킬로미터(10,500 제곱 마일)의 지역을 덮으며 북부의 애리조나(Arizona)를 가로질러 남부의 네바다(Nevada)까지 290 킬로미터(180 마일)나 뻗어있습니다. 이 오징어 같은 화석들은 작고 어린 노틸로이드에서 크고 늙은 부류까지 모두 크기가 다릅니다.

이처럼 광대한 화석묘지를 형성하려면, 초당 5미터(16피트) 이상(18km/h(11 mph 이상))의 속도로 걸쭉한 스프 같은 반죽(slurry) 상태로 흐르는 100 세제곱 킬로미터(24 세제곱 마일)의 석회, 모래 및 실트가 격벽적으로 이 거대하고 살아있는 노틸로이드 집단을 매몰해서 덮어야만 합니다.



프랑스, 몽소레민(Montceau-les-Mines)의 한 화석묘지에는 수십만의 해양 피조물들이 양서류, 거미, 전갈, 노래기(millipedes), 곤충 및 파충류들과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400종 이상을 보여주는 100,000개 이상의 화석 표본들이 시카고 부근의 메이존 크릭(Mazon Creek) 지역의 석탄층과 관련이 있는 셰일 층으로부터 복구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화석묘지에는 종종 연부까지 섬세하게 보존된 해파리, 연체동물, 갑각류 및 물고기와 함께 양서류, 곤충, 전갈 및 사지동물도 들어있습니다.

콜로라도, 플로리상(Florissant)에는 매우 다양한 곤충들, 담수 연체동물들, 물고기, 새들 및 수백 종의 식물(견과류와 꽃들을 포함해서)이 함께 묻혀 있습니다. 벌들과 새들이 그렇게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급격히 묻혀야만 합니다.

악어, 물고기(1-2미터(3-7피트) 길이의 개복치, 도도바리가재(deep sea bass), 처브(chubs), 강꼬치류(pickerel), 청어 및 동갈치(garpike)를 포함하는), 새, 거북이, 포유동물, 연체동물, 갑각류, 많은 다양한 곤충, 그리고 종려잎들(2-2.5m(7-9피트) 길이)이 와이오밍의 방대한 그린리버층(Green River Formation)에 함께 묻혔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성 피조물과 육상 피조물이 함께 묻혀서 발견되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전 지구적이고 격변적인 대홍수 속에서 대양의 바닷물이 사나워져서 대륙 위로 급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섬이자 한 주(state)인 **태즈메이니아**(Tasmania; 그림 3)의 북쪽 해안에 있는 블러프 화석지(Fossil Bluff)에서, 수천 개의 해성 피조물(산호들, 이끼 벌레류(레이스 산호들), 이매패[대합], 그리고 복족류[달팽이])가 **이빨고래류**(그림 4)와 **유대류의 주머니쥐**(그림 5)와 더불어 부서진 상태로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고래와 주머니쥐(possums)는 함께 살지 않으므로, 오직 물로 인한 격변만이 그것들을 함께 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암모나이트**(그림 8)와 다른 해성 피조물들이 영국의 백악층(그림 6)에 묻히기 위해서는 수십조의 **극히 미세한 해성 피조물들**(그림 7)이 그것들을 격변적으로 묻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층들은 또한 미국의 중서부뿐만 아니라 유럽을 바로 가로질러 중동까지 이르러 전 지구적인 규모의 화석묘지를 형성합니다. 덧붙여서, 남극대륙을 포함해서 모든 대륙을 가로질러 발견되는 지구상의 석탄층 내에는 7조톤 이상의 식물이 묻혀있습니다.

### 섬세한 보존 상태 (Exquisite Preservation)

격변적인 대홍수 상황 아래에서 많은 피조물들이 묻혀서 화석화되었던 속력은 앞에 서술한 대로여서 그것들은 섬세하게 보존되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너무나 빨리, 사실상 살아있는 채로 묻혔기에, 심지어 지느러미와 눈구멍의 세밀한 부분조차도 보존되었습니다(그림 9). 많은 **삼엽충들**(그림 10)이 너무나 섬세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심지어 눈에 있는 복합렌즈 시스템조차도 상세한 연구에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9. 일부 물고기는 너무나 급격히 묻혀서 지느러미와 눈구멍의 세밀한 부분도 보존되었다. 사진 제공: 앤드류 스넬링 박사  
(Figure 9—Some fish are buried so rapidly that fine details of fins and eye sockets have been preserved.)



그림 10. 이 삼엽충은 너무나 섬세하게 보존되어서 눈에 있는 복합렌즈 시스템조차도 상세한 연구에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 사진 제공: 앤드류 스넬링 박사  
(Figure 10—This trilobite has been so exquisitely preserved that even the compound lens systems in their eyes are still available for detailed study.)

모소나이츠 스프리기(Mawsonites spriggi)는 발견되었을 때 **화석화된 해파리**(그림 11)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지인 남쪽 오스트레일리아의 1,040 제곱킬로미터(400 제곱마일) 이상을 덮고 있는 사암층 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몸체를 가진 수백만의 해양 피조물들이 이 사암층 내에 섬세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림 11. 이처럼 화석화된 해파리(Mawsonites spriggi)와 같이 부드러운 몸체를 가진 해양 피조물들이 사암층 내에 세밀하게 보존되어 있다. 사진 제공: 앤드류 스넬링 박사

(Figure 11—Soft-bodied marine creatures, such as this fossilized jellyfish (Mawsonites spriggi), are finely preserved in a sandstone bed.)

해파리와 같이 부드러운 몸체를 가진 피조물이 오늘날 해변으로 밀려 올려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부드러운 ‘젤리’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햇빛에 녹고 또한 해변 위로 밀려와 부서지는 파도에 의하여 파괴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보존된 부드러운 몸체를 가진 해양 피조물들의 발견자는 그것들 모두 다 하루 미만에 묻혔어야만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 물고기들은 지질 기록 내에서 산 채로 묻혀서 너무나 빨리 화석화되었는데 그것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식사를 먹는 중에 그렇게 되었습니다(그림 12).

그 다음, 암컷 해양성 파충류의 전형적인 예가 있는데, 약 2미터(6피트) 길이의 어룡(ichthyosaur)이 새끼를 낳는 순간에 화석화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그림 13)! 이 커다란 피조물이 새끼를 낳는 순간에 도망갈 시간도 없이 바로 어미와 새끼가 석회질 흙의 격변적인 ‘사태(avalanche)’에 묻혀서 ‘순간적으로 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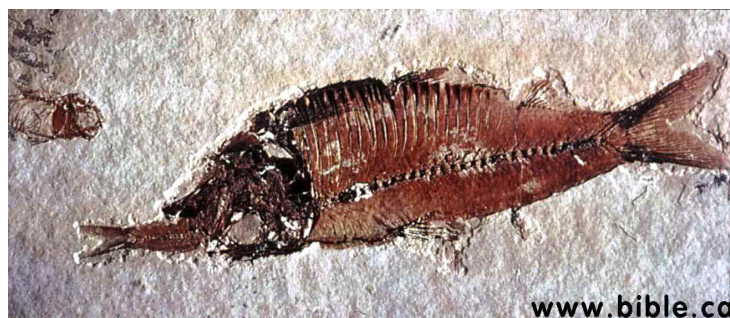


그림 12. 자신의 마지막 식사를 ‘먹던 중에’ 붙잡힌 이 물고기처럼 많은 물고기들이 산 채로 묻혀서 빨리 화석화되었다.

Figure 12—Many fish were buried alive and fossilized quickly, such as this fish “caught in the act” of eating its last m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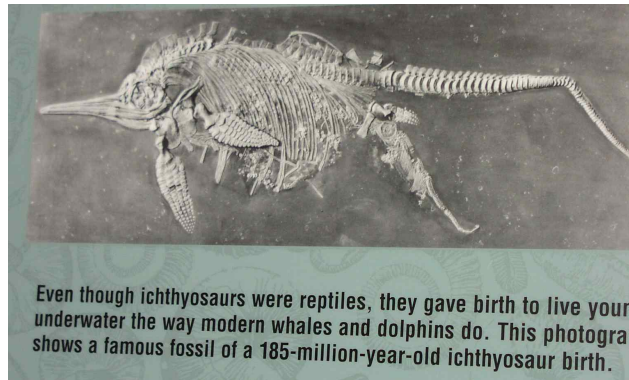


그림 13. 해양 파충류인 이 암컷 어룡은 새끼를 낳는 순간에 화석화된 것으로 발견되었다.

(Figure 13—This female ichthyosaur, a marine reptile, was found fossilized at the moment of giving birth to her baby.)

## 결론 (Conclusions)

이것들은 현재 지질학 문헌에서 충분히 입증되어 있는 전 지구에 걸쳐서 발견되는 수백 개의 화석 묘지들 중의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섬세하게 보존되어 있는 이러한 묘지들 내의 셀 수 없이 많은 수십억에 수십억의 화석들은 전 지구적인 규모로 물로 인한 격변과 그 직후의 여파로 예전에 살았던 동식물이 급격하게 매몰되었음을 입증합니다. (The countless billions and billions of fossils in these graveyards, in many cases exquisitely preserved, testify to the rapid burial of once-living plants and animals on a global scale in a watery cataclysm and its immediate aftermath.) 종종 이러한 화석묘지들은 해성과 육성 피조물들이 섞여 있어서 이러한 전 지구적인 격변을 일으킨 물이 대양과 대륙을 모두 휩쓸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들이 대홍수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다시 읽고 어떤 증거를 기대해야하는 지를 직접 묻는다면, 그 답은 명백합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물에 의해 퇴적된 암층 내에 묻힌 수십억의 동식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이고 격변적인 창세기 대홍수와 그것의 여파는, 하나님께서 지구의 역사에 대한 그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에 있어서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지질학 시리즈의 다음 기사에서는 더 상세하게 창세기 7-8장에 설명된 대홍수 물에 의하여 야기된 방대한 지역들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는 급격하게 퇴적된 퇴적층들의 지질학적 증거를 살펴볼 것입니다.



## 빛나는 얼굴

내가 근무하는 대학에서 대학원 입학 을 위한 면접시험이 있을 때, 면접을 보러 오는 학생들은 저마다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교수들의 질문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공부해온 지식을 총동원하여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애를 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긴장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는데 가끔 어떤 학생들은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 애를 쓴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인상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전문가들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을 평가하는 데는 불과 7~15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스냅스(snaps) 현상이라고 하는데 결국 10초 안팎의 순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화로 서로 접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처음 두세 마디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마케팅 선진국에서는 전화를 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전화를 받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 비즈니스 교육의 한 파트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도 면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리고 회사나 지원부서의 이미지에 자신이 부합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외모도 최선을 다하여 꾸민다. 정성을 들여 머리도 예쁘게 가꾸고 옷 매무새도 단정하게 한다. 그리고 얼굴에 점이 많은 사람은 레이저 시술로 점을 빼기도 하고 주름이 깊이 패여 있는 사람은 얼굴의 주름을 펴기 위해 보톡스 주사를 맞기도 한다.

보톡스는 *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혐기성 박테리아로부터 만들어지는 독소인데 신경에 작용하는 독이다. 이 박테리아는 통조림 같은 음식에 가끔 자라는데 통조림의 제조과정에서 멸균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박테리아의 포자가 살아남아 있을 경우 밀봉된 통조림 안에서 자라나 독소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이 독이 든 통조림을 먹을 경우 목숨을 잃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이런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보톡스지만 이 독소의 작용을 역으로 이용하여 미용에 사용하는 것이다. 모든 근육은 움직일 때 운동 신경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어 근육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작용함으로써 근육이 수축되어 움직이게 된다. 아세틸콜린은 신경말단의 분비포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신경자극이 오게 되면 신경말단의 세포막과 융합하여 분비포 안에 있던 아세틸콜린이 쏟아져 나오므로 근육 세포를 자극하게 된다.

이때 미량의 보톡스를 주름이 생긴 부위에 주사하게 되면 신경말단에서 분비포와 세포막이 융합하는데 필요한 특수 단백질들을 절단해서 못쓰게 만들기 때문에 융합이 일어나지 못하여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근육이 못 움직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름을 이루는 근육이 위축되어 얼굴의 주름을 지우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보톡스 주사를 맞기도 하고 얼굴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각자가 가진 이미지가 있고 이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고 본다.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얼굴의 주름을 펴거나 성형 수술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 간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님 중의 한 분이셨던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 산헤드린 공회에서 최후의 심문을 당할 때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다.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소하고 당시의 권력자들이 협박하는 상황에서, 주눅이 들고 겁에 질려 사색이 될 법도 하였으나 오히려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었고 이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가렸다고 했다. 스테반 집사님이나 모세가 빛나는 얼굴, 즉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된 것은 화장을 하거나 머리에 기름을 발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그 명령을 받아 순종했었고 스테반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의 기록은 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미지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좇아 믿음으로 행하며 성령님의 뜻에 얼마나 우리를 순응시키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천사의 모습으로 변해 가리라 믿는다.** 이런 삶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한 주님의 모습이 빛나게 될 것이다. 나는 약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우리를 우겨 싸며 치러할지라도 우리는 겁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초라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갈 수 있다. 나는 미련할지라도 무한히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슬기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나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미미한 존재지만 광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빛나는 천사의 얼굴은 나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통해, 어느새 주님의 모습을 닮아 천사의 얼굴을 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편만하기를 소원해 본다.**

출처 :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중에서 **창조**

## 창세기 대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성경 속의 다양한 사건들은 현대과학에 반하므로 단순한 설화일 뿐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과학 혹은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등등)이 있다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한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대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 중요성**으로 창세기의 대홍수를 참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성경의 진실성(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창세기의 대홍수를 역사적 사건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만약 창세기 대홍수가 단지 설화일 뿐이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된 하나의 교회놀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대홍수는 인간의 역사와 자연현상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적 경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장차 올 마지막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믿고 예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과학적 중요성**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진화론과 동일과정설이라는 굴레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만물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많은 과학적 자료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대홍수의 사건을 창세기 6, 7, 8, 9장에 걸쳐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가 진행되어진 날짜들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여 놓고 있는데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설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창세기 대홍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대홍수는 노아가 육백세 되던 해(약 BC 2,350년경으로 추정. 이 연대는 오차 가능성이 있음)에 일어났는데, 대홍수의 연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대홍수의 연대기>

480세 :                      대홍수 경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창 6:13)

600세 :      2월 10일              방주에 들어감. 7일을 기다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창 7:1)

지금부터 칠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창 7:4)

칠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육백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창 7:10,11,12)

물이 일백 오십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창 7:24)

**칠월 곧 그 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창 8:4)

물이 점점 감하여 **시월 곧 그달 일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창 8:5)

11월 19일              비둘기를 내보냄.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움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창 8:11)

**육백 일년 정월 곧 그 달 일일**에 지면에 물이 건히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건혔더니(창 8:13)

**이월 이십칠일**에 땅이 말랐더라(창 8:14)

노아가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창 8:18)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 8:22) - 추위와 겨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

창조퀴즈>

창세기 대홍수 사건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ARK)에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http://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ssoya89@hanmail.net)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